

“남북회담, 강원경제 한반도 거점 기회 삼아야”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좌담회

회담 계기 경제발전 방안 논의
접경지역 중심 경협시설 확충
남북간 고효율 교류 계획 기대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17일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사업기관에서 도내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강원도 경제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강원 경제계가 18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강원도 경제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17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강원기업들의 판로확보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중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도내 경제발전 기회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이번 방북단에는 금강산·철도 관련기업이 동행해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며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을 맡아 온 현대아산은 강원도 고성에 본사를 둔 지역기업인 만큼, 이번 방북에서 강원도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협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장

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강원도 경제이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장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강원도가 글로벌 물류·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특히 철원이나 고성 등 접경지에 남북공동으로 자유경제무역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도록 구체적 경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원도 중심

의 남북간 고효율 경제교류가 계획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강원도는 북한과 지리적 가깝다는 경제이점이 있는 만큼, 강원기업이 남북경제교류를 선점해야 한다”며 “북한의 낮은 임금근로자와 국내기업의 기술력 융합이 핵심이다”고 제시했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장은 “이번 방북에서 남북협력사업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와줘야 한다”며 “그래

야 남북간 교류사업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은 “정부의 신경제지도를 위해서라도 이번 방북을 통해 강원도 접경지 중심의 경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주란 강원여성경영인협회장도 “그동안 제한적이던 강원도 자원활용을 이번 방북기회로 높여 강원도가 한반도 경제거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관호 gwanho@kado.net

도로·철도 등 조사설계 예산 줄줄이 ‘썩둑’

씨 마르는 SOC 사업 건설 침체터널 장기화

내년 도로분야 조사설계 예산 380억원으로 올해보다 40% ‘↓’
철도분야는 절반에도 못미쳐
건설 미래 먹거리 갈수록 줄어들어
업계 “대형 프로젝트 발굴 절실”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기반시설) 분야의 조사설계 관련 예산이 내년에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SOC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SOC 투자자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조사설계 예산마저 위축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건설경제>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조사설계 예산은 380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625억5400만원보다 40% 정도 감소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고속도로 조사설계 예산은 45억3600만원에 불과해 올해 예산인 157억9200만원과 비교하면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반국도의 조사설계 예산도 내년에는 335억3000만원으로 올해(467억6200만원)보다 132억원가량 줄었다.

SOC 분야의 조사설계 예산 감소는 도로뿐만 아니다.

내년 일반철도 분야의 조사설계 예산은 124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인 25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SOC 분야의 조사설계 예산은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 등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조사설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 중인 건설 프로젝트가 감소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설계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추진될 SOC 사업 자체가 감소한다는 의미”라면서 “건설업계의 미래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는 물론 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시점이 되면 건설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 줄인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372억원이 감소했고, 일반철도는 1324억원이나 줄었다. 일반국도 건설 예산도 70억원 정도 감소했다. 다만, 내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올해보다 198억원 늘려 편성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업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수년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형 프로젝트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